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본 연구는 현재 하루 12시간 종일제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많은 영아가 보육서비스를 종일제보다 짧게 이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기관 이용 이유와 이러한 단시간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기관을 반일제 이하로 단시간 이용할 경우 평균 하루 4시간 미만이나 한 주에 평균 약 5일에 걸쳐 꾸준한 형태로 이용하며,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아이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이 영아의 단시간 기관 이용 시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양육자가 비혈연인력인지 여부, 어머니의 근로시간, 기관 이용 시기에 대한 가치관, 아동의 연령이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 양육을 주된 양육형태로 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주양육자가 비혈연 인력이 아닌 경우,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이용 시기가 빠를수록, 대상 영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기관을 단시간 병행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수요자의 보육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일률적인 종일제 형태를 탈피한 다양한 이용 시간별 보육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맞벌이, 영아, 가정 내 양육, 기관 보육 서비스, 단시간 보육 서비스

* 교신저자: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dian74@kicce.re.kr)

■ 투고일: 2013.10.31 ■ 수정일: 2014.1.29 ■ 게재확정일: 2014.3.18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보육료 비용 부과 및 지원체계는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의 12시간 '종일제'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의 실질적 이용 시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12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시간연장 보육, 24시간 보육 등 기본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육료가 추가될 뿐이며, 12시간 이내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 시간에 따른 격차가 없는 일률적인 보육료 체계가 적용된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체계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에게 실제 필요한 서비스 보다 장시간 이용을 유도할 가능성, 즉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²⁾. 이용시간의 장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차이가 없다면 이용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용자가 원하는 적정 '서비스 량' 즉, 양적인 보육수요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종일제를 기본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체계는 취약보육의 대상이 되는 장시간 보육 수요자만이 아닌 반일제 등 '단시간' 보육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비용도 절감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는 보육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가 모두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장시간의 수요도 있는 반면 단시간의 보육 수요도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간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12시간의 운영시간이 그대로 아동의 기본 이용 시간으로 인식되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서문희 외, 2008, 2010). 그리고 이는 하루 8시간 이상 전일제(full-time)로 근로하는 맞벌이 부모에게는 어쩔 수 없으며, 이 보다 더 장시간의 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수요도 높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영유아가 유아교육기관 혹은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아동의 스트레

1) 본 연구는 2012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수행 연구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I):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를 위해 실시되었던 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연구임.

2) 보건복지부(2011.10.4).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스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Belsky & Rovine, 1988: 164; Dettling, Gunnar & Dnsella, 1999). 코티졸 호르몬을 이용한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도 영유아의 기관 이용, 특히 긴 시간 이용이 아동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을 높인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보고 되기도 했다(Geoffroy et al., 2006; Vermeer & van IJzendoorn, 2006; 최윤경 외, 2012에서 재인용).

이처럼 영유아 시기에 장시간 기관 이용에 대한 요구와 우려가 함께 나타나는 가운데,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종일제 보다는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3차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은 아동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은 오후 3~5시로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에도 22.2%는 오후 4시 전에 하원하며, 30.2%는 4~5시 사이에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12: 232).

한편 0~2세 영아기는 애착형성의 중요한 시기로 가정에서의 양육이 권장되며(심미경, 2012: 7), 기관에서의 보육이 선호되지 않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가정 내 양육의 보완 측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모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유아교육기관, 보육기관의 운영시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변인에 의해 종일제 이상의 형태가 아닌 단시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시간 보육 수요,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도 대리양육서비스와의 병행 이용 등을 통해 단시간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함을 밝혀 이러한 단시간 보육서비스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용자 차원에서는 12시간 이내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든 보육료 부담은 없으나, 12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결정된 지원단가³⁾대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 지원단가를 차등화하면 예산 사용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12시간 이내에서 좀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기관 보육 서비스 이용이 선호되지 않는 0~2세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중 자녀를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대리양육자를 두어 가정 내 양육을 주된 양육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중 기존 '유아

3) 12시간 종일제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 394,000원, 1세 347,000원, 2세 286,000원임.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안내.

교육법에 의해 '반일제' 이용의 기준이 되는 하루 5시간 미만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단시간 기관 이용의 이유와 이들의 단시간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영아기 자녀에 대해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영아기 자녀에 대해 가정 내 양육을 하며 기관을 단시간 병행하여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영아기 자녀에 대해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문제의 해답을 탐색함으로써 현행 종일제 기준 보육료 지원 체계의 개선과 가구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단시간 보육 서비스 개발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가. 영아의 양육 형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지원정책은 기관보육에 대한 지원 위주로 확대되었고,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등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아수의 양적 증대와 함께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아동의 연령대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전통적으로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 보육이 선호되지 않았으나(노성향, 2010: 122; 이미화 외, 2011: 178; 이정원 외, 2012: 50에서 재인용)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시기는 점차 빨라져 영아의 기관이용률도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3~4세 보다 먼저 실시됨으로써 그동안 높지 않았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급증하여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증가와 어린이집에 의한 이용자 선별에 대한 우려까지 자아낸 바 있다.

실제로 201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0~2세아 872,284명이 어린이 집에 재원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12월 동연령 인구 대비 62.0%에 해당하는 인구이다. 즉, 2012년 말 기준 영아중 약 62%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2011년에 0~2세 어린이집 재원아수가 739,332명이었음에 비하면 1년 사이 이용아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도입 등 기관보육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인해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이 이처럼 보편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아에 대해서는 주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의 중요성 등으로 인해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장시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기관 이용이 본격화·보편화되는 유아기와는 다소 다른 양육 형태가 나타나,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가 휴직하여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 등 혈연인력, 베이비시터 등 비혈연 인력 등 대리양육자를 두어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가구가 적지 않다. 또한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전적인 기관 이용만이 아니라 가정 내 양육이 주가 되며 기관과 병행하는 형태가 빈번하다.

표 1. 영아의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단위: %(명)

	2009		2012	
	영아	전체	영아	전체
기관	29.4	49.9	35.6	50.5
기관+개인	10.6	16.3	20.6	26.9
개인서비스	17.1	9.5	18.9	9.6
미이용	42.9	24.3	24.9	13.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743)	(3,302)	(1,802)	(3,343)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표 1>의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영아의 경우 개인보육서비스⁴⁾ 이용률이 조사대상 영아 가구 1,802사례 중 18.9%에 달하였는데 이는 3년

4)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비혈연에 의한 개별적 보육서비스를 지칭함(서문희 외, 2012: 128).

전인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의 결과인 17.1%보다 약 1.8% 증가한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리양육서비스는 '기관보육서비스'이지만,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육아휴직이용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모가 '개인보육(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해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개인보육(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정원 외(2012: 134; 147)의 연구에서도 가정 내 양육 가구 중 개인대리양육자를 두고 있는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였고 대리양육자의 이용 이유는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위해서'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부모가 주양육자이거나, 혹은 개인보육(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해 가정 내 양육을 주된 양육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라도 어린이집 등 기관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가정 내 대리양육자를 두고 영아기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면서도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10.6%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20.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 자녀에 대해 가정 내 양육을 바람직한 양육 형태로 선호하면서도 가정 내 양육만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가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기 원하거나, 반대로 기관보육을 선호하더라도 종일제 보육은 원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다양한 보육 욕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나.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

아동의 기관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시간은 보육료 지원 기준인 12시간 종일제 보다 짧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영아는 유아에 비해서도 더 짧은 시간 이용하고 있다.

<표 2>의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하루 평균 7시간 34분을 이용하고 있었고, 영유아를 구분할 때 영아는 하루 평균 7시간 20분으로 유아 평균 7시간 49분보다 짧게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동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 중 약 5.7%는 5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영아는 5시간 미만 이용이 9.8%이고 연령별로는 만 0세는 5시간 미만 이용이 30.5%, 만 1세 11.2%,

만 2세 3.3%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단시간 기관 이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서문희 외, 2012: 233).

표 2.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 시간

단위: %(명)

	영유아 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9.8	1.0	30.5	11.2	3.3	1.1	2.3	-	5.7
5~6시간	11.7	9.2	9.5	12.8	11.4	10.5	4.5	12.2	10.5
6~7시간	26.6	26.0	13.3	29.9	27.6	28.1	22.3	26.4	26.3
7~8시간	24.9	28.3	15.2	18.8	32.2	28.8	32.3	23.4	26.5
8~9시간	13.2	16.9	10.5	11.5	15.2	14.4	18.6	18.3	14.9
9~10시간	7.1	13.3	4.8	7.6	7.3	11.2	13.6	16.2	10.0
10시간 이상	6.7	5.3	16.2	8.2	3.0	6.0	6.4	3.6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1,536)
평균	7시간 20분	7시간 49분	7시간	7시간 16분	7시간 29분	7시간 43분	7시간 58분	7시간 47분	7시간 34분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표 VI-2-20> 재구성.

앞서 <표 1>에서 나타난 개인보육(대리양육)서비스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주로 기관을 단시간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영아에 대해서는 특히 긴 시간의 기관 보육의 영향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보육(대리양육)서비스와의 병행 이용의 경우만이 아닌, 기관만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5시간 미만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보육서비스 이용 이유 및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용 이유는 자녀가 영아인지, 유아인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과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이유를 조사한 연구에서 영아는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으나, 유아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가 기관 이용의 가장 큰 이유로 영유아간 차이가 있었다(이정원 ·

이윤진, 2008: 85). 이러한 영유아의 기관 이용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는데, 2009년의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이유로 ‘사회성 발달’, ‘부모대리 보호’, ‘전인적 발달’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2009년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육부담 경감’의 항목이 포함된 후, ‘사회성 발달’ 목적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인적 발달’과 ‘부모 대리보호’ 목적의 이용은 크게 낮아졌다. 대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14.3%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다(서문희 외, 2012: 223). 영아의 경우는 특히 ‘양육부담 경감’ 목적의 어린이집 이용이 19.3%로 유아(8.6%)보다 상당히 높았다(서문희 외, 2012: 224). 즉, 영유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이유가 부모에 대한 ‘전적인 대리보호(양육)’만이 아닌 양육부담 경감, 아동의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기관을 반드시 장시간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영유아 대상의 학원⁵⁾ 등 영유아 대상 기관의 이용 여부, 이용시간 등 이용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구소득수준과 같은 가구특성,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 형태 결정에 결정권을 지니는 어머니의 특성, 아동 자체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먼저, 영유아 대상 기관 이용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수준은 이러한 기관 이용을 가능케 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특정 양육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드러나기 때문에 가구소득수준은 영유아의 기관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구소득수준이 기관 이용 등 특정 양육 형태 선택과 연관되는 현상은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수준이나 지원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 기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변화 등 외적 요인과 관련되어 영향력의 유무나 크기, 방향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세경(1994: 145)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시설 탁아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연구(서문희 외, 2009: 112-113; 서문희, 2010: 15)에서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주로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선호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형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구소득수준은 250~299만원대로 이 소득수준대 가정의

5) 여기서의 영유아 대상 학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용도로의 학원을 의미하여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원을 말함.

51.7%가 이용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49만원 이하가 37.9%의 이용률로 500만원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3세 미만 영아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도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문희 외, 2012: 134) 2009년의 조사 결과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한편 신나리와 안재진의 연구(2012: 870)에서 '가구소득수준은 맞벌이 가구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연구에서 연령, 학력, 양육형태에 대한 가치관, 취업특성 등 어머니의 특성이 영유아를 위한 기관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 아동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생각과 상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드러나므로(Park et al., 2011: 425; 이정원 외, 2012: 187) 이로 인해 양육행태에 대한 동질집단의 트렌드나 양육 철학을 드러낼 수 있는 어머니의 연령이나 학력은 주요한 영향 요인일 것으로 기대되어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기관 이용에 대한 어머니 연령의 영향력은 일관되지 않아 김지경(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 연령이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도 있다(이정원, 2008: 106). 학력의 경우도 영향력의 유무나 방향이 일관되지 않는다. Berinde(1999: 355)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에서는 고학력 여성이 공적 주간보육센터(day-care)를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한국아동 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한 한 연구에서는 고졸이하 학력의 어머니보다 대졸이상 학력의 어머니 그룹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Ahn & Shin, 2011: 447). 또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에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이정원, 2008: 107; 이윤진 외, 2010: 82).

어머니의 특성 중 '취업' 관련 요인은 자녀의 기관 이용 행태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모인 경우 그 자녀의 기관 이용률은 증가하며(서문희 외, 2009: 114-115; 136-138), 농어촌 지역 영아의 기관 이용에도 어머니의 취업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2008: 107).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 뿐 아니라 세부적 취업특성인 '근로시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길어진다는 결과와 함께(정선옥 외, 2005: 119; 신나리·안재진, 2012: 870),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주당 36~40시간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오히려

려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Ahn & Shin, 2011: 447) 근로시간의 효과가 어린이집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분석대상은 만 1세로 기관 이용이 선호되지 않는 영아라는 점에서 미취학 영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관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즉, 영아에 대해서는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기관보육보다는 다른 형태의 대리양육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Ahn & Shin, 2011: 447).

이밖에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도 기관 이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으로,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자녀 연령에 적절한 보육서비스라고 인식하는 경우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나리·안재진, 2012: 870-871).

다음으로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아동) 관련 요인으로는 아동의 연령, 자녀수를 들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은 부모의 양육 행태에 대한 가치관과 연관되어 기관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어릴수록 기관보육을 기피하고 반대로 가정 내 양육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을 나타내며(이정원 외, 2012: 102)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기관 이용률은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2012년 기준, 0세의 기관 이용률⁶⁾은 21.4%에 불과하나 5세 이상은 99.1%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서문희 외, 2012: 130)⁷⁾. 기관 이용 시간도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문희 외, 2012: 233). 그러나, 정선옥 외(2005: 119)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다 어린 아동에 비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서비스 이용보다는 사교육 이용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안재진(2009: 116)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경우 부모들이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기에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여 유아보다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이 낮으며, 이러한 경우 단시간의 시간제 기관이나 개별교육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교육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녀수는 기관 이용 행태에 주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녀수가 많으면 기관 이용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며(이정원, 2008: 106), 기관 이용 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신나리·안재진, 2012: 871).

6) 기관 +개인양육서비스 병행 이용 포함.

7) 기관이용에는 유치원·어린이집·유아대상 학원 이용이 모두 포함됨.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요인들 중에는 꾸준히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도 있으나, 가구의 영유아 대상 기관 이용 행태는 정책 변화에도 민감한 경향을 보이며, 부모들의 기관 이용 목적도 다양할 수 있어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른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2년도에 0~2세 영아가 있는 가구 중 주된 양육 방법이 부모나 친인척, 비혈연의 양육 인력 등에 의한 가정 내 양육인 1,015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별 0~2세 영아의 주민등록인구수를 제곱근비례 할당 방식으로 사례를 할당하여 표본추출 하였다. 이와 함께 0~2세 영아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취업률⁸⁾을 고려해 취업모가 이에 상응한 수준으로 포함되도록 목표 사례를 할당하여 최종적으로 270사례의 취업모 가구가 포함되었다.

이 조사의 주된 설문 내용은 가정 내 양육 가구의 양육 실태와 애로사항, 주양육자별 필요한 양육 지원 요구에 관한 것이며, 가정 내 양육 가구이지만 하루 5시간 미만 단시간 기관을 이용 하는 경우의 이용 행태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한 조사 자료 중에서 현재 부모 모두 취업상태인 맞벌이 가구, 즉 어머니가 취업중인 가구 270사례만을 선별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270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루 5시간 미만 단시간 기관 병행 여부 및 기관 이용 행태,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의 주된 결정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취업은 전제로 한 상태에서 영아가 있는 가구에서, 특히 가정 내 양육을 주된 방식으로

8)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 0~2세 영아가 있는 가구의 모 취업률은 29.9%였음.

택하고 있는 가구의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2. 변수 선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맞벌이인 가정 내 (영아) 양육 가구의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종속변수는 ‘단시간 기관병행 이용 여부’를 선정하였다⁹⁾. 이는 기관 이용여부에 따라 범주를 구분한 2분변수이다(이용=1, 미이용 =0).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이용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과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가구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인력 자원 여부와 가구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가구특성 요인’과 ‘자녀(아동)의 특성 요인’,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방법에 있어 주된 결정권자인 ‘어머니의 특성 요인’을 들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 조사데이터는 영아 가구의 주양육자를 부모, 조부모 등 혈연 인력, 베이비시터 등 비혈연 인력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사례가 일정 부분 할당되어 조사된 것으로, 대체 인력 자원의 특성이 표본설계단계에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변인에 가구특성요인 중 ‘인력자원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변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맞벌이 가구의 주양육자가 부모 자신이거나 조부모 등의 혈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기관 이용의 목적이나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¹⁰⁾ ‘주양육자의 비혈연인력 여부’를 가구 특성 요인으로 포함시켰

⁹⁾ 본 연구에서 ‘단시간’ 이용의 기준은 하루 5시간미만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개정 전 ‘유아교육법’ 제 2조에서 ‘반일제’ 교육과정이 ‘1일 3시간 이상 5시간미만 교육과정’으로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주로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로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주된 양육 방식이 ‘기관 양육’이 아닌 ‘가정 내 양육’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관 이용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종일제’ 대비 ‘반일제’ 이하의 이용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이밖에 가구 특성 요인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포함하였다. 0~2세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차등지원이 되었고, 이러한 보육료 지원의 수준과 대상 여부는 어린이집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으나, 2012년 전면적으로 시행된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가구소득수준'의 영향력은 변화하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데이터는 2012년에 실시된 조사의 데이터로 2012년 시행된 영아무상보육 정책이 기관이용행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특성 요인으로는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어머니가 속한 세대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령'과 기관 이용에 대한 가치관을 대리할 수 있는 '학력', 보다 직접적으로 기관 이용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이용 시기', 맞벌이 가구의 보육 욕구를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의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시간의 장단과 함께 근로시간의 규칙성 정도가 자녀 양육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 퇴근 시간의 규칙성 정도'를 포함하였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측정하였고, 퇴근시간의 규칙성 정도는 '매우 불규칙-1점'에서 '매우 규칙적-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특성 요인으로 '어머니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였다.

셋째, 자녀 특성 요인으로는 대상영아의 연령과 자녀수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집단보육보다는 개별보육을 선호하며, '기관에 보내기에는(집단 보육을 받기에는)'어린 나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이정원 외, 2012: 194) 대상 아동의 '연령'은 기관 이용에 있어 어머니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수는 양육자의 양육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수가 많으면 양육부담의 증가로 기관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현재 이러한 양육 부담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어린이집의 입소우선순위에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자녀수를 기관 이용과 관련해 독립변수로 살펴볼 필요는 충분하다 하겠다.

10) 부모와 조부모 등 혈연이 주양육자인 경우 주된 기관 병행 이유는 '양육자의 육아 부담과 피로를 줄이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이비시터 등 '비혈연 인력'이 주양육자이면서 기관을 병행 이용할 경우는 이러한 응답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하루 종일 돌봐줄 수 있는 인력이 없거나, 아이의 다양한 경험, 어머니의 취업 활동을 위함이라는 다양한 이유가 고르게 응답되었다(이정원 외, 2012: 191).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기관이용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 패키지 SPSS 20.0 버전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인 '단시간 기관 이용 여부(이용=1, 미이용=0)'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처럼 종속변수의 범주가 2개인 경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통계분석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주요 변수 관련 특성)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 내 영아 양육 가구의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투입될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대상 맞벌이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3). 조사자료 중 맞벌이 가구 270사례를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각 독립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맞벌이 가구 270 사례 중 조사 시점 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87사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183사례에 해당하였다.

표 3.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변수	범주	기관 미이용 가구(n=183)		단시간 기관 이용가구(n=87)	
				평균		평균
가구 특성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4)		4.6(4)	
		200~300만원 미만	12.0(22)	458.4(만원)	8.0(7)	439.4(만원)
		300~500만원 미만	42.6(78)		54.0(47)	
		500만원 이상	43.2(79)		33.3(29)	
	주양육자	부모	35.5(65)		62.1(54)	
		친인척	19.1(35)		24.1(21)	
		비혈연인력	45.4(83)		13.8(12)	

	변수	범주	기관 미이용 가구(n=183)		단시간 기관 이용가구(n=87)		
				평균		평균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연령	29세 이하	11.0(20)		10.3(9)		
		30~34세	50.0(91)	33.7(세)	49.4(43)	33.7(세)	
		35~39세	29.1(53)		33.3(29)		
		40세 이상	9.9(18)		6.9(6)		
	학력	고졸 이하	16.3(30)		27.5(24)		
		전문대 졸	16.3(30)		17.2(15)		
		4년제 대학 졸	60.8(111)		48.3(42)		
		대학원 이상	6.6(12)		6.9(6)		
	가치관 (적절한 기관이용시기)	12개월 미만	1.1(2)		1.1(1)		
		12~24개월 미만	6.6(12)	33.8(개월)	16.1(14)	28.6(개월)	
		24~36개월 미만	31.7(58)		50.6(44)		
		36개월 이상	60.7(111)		32.2(28)		
어머니의 근로특성	주평균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11.5(21)		33.3(29)		
		40~50시간 미만	76.5(140)	41.7(시간)	52.9(46)	37.2(시간)	
		50시간 이상	12.0(22)		13.8(12)		
	퇴근시간의 규칙성 정도	매우 불규칙	4.4(8)		12.6(11)		
		불규칙한 편	8.2(15)		5.7(5)		
		규칙적인 편	78.7(144)		74.7(65)		
	어머니의 근로소득	매우 규칙적	8.7(16)		6.9(6)		
		1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23.5(43)		24.1(21)	
			100~200만원 미만	27.9(51)		36.8(32)	
			200~300만원 미만	36.6(67)	165.5(만원)	26.4(23)	154.0(만원)
			300~500만원 미만	10.9(20)		11.5(10)	
	500만원 이상		1.1(2)		0.0(0)		
자녀 특성	대상 영아 연령	12개월 미만	35.5(65)		12.8(11)		
		12~24개월 미만	45.4(83)	15.1(개월)	26.7(23)	23.9(개월)	
		24~36개월 미만	19.1(35)		60.5(52)		
	자녀수	1명	61.7(113)		46.0(40)		
		2명	30.6(56)	1.5(명)	47.1(41)	1.6(명)	
		3명 이상	7.7(14)		6.9(6)		

<표 3>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중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만 양육 중인 가구의 소득은 평균 458.4만원이며, 기관을 단시간 병행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은 439.4만원이었다.

대상가구 영아의 '단시간 주양육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기관 미이용 가구 183사례 중에서는 주양육자가 부모인 경우가 35.5%, 조부모 등 혈연인 경우는 19.1%, 베이비시터 등 비혈연의 인력이 주양육자인 경우가 45.4%에 해당하여 대리양육자를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에 반해 단시간 기관병행이용가구의 경우는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62.1%에 해당하여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즉, 맞벌이지만 부모 자신이 주양육자로 자녀를 가정 내에서 돌보면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관 이용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주양육자 역할을 하면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이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에서 시간제 근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비전형적인 근로 형태를 선호할 수 있고, 자영업 등 일과 육아를 같은 공간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경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관 미이용 맞벌이 가구는 기관병행이용 가구에 비해 '비혈연'인력이 주양육자인 경우가 현저히 높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기관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 평균 연령은 33.7세로 같고 두 집단간 연령 분포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즉, 두 집단 모두 어머니 연령은 30~34세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여 기관 미이용 가구 50.0%,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 가구 49.4%가 이 연령대에 해당되었고, 그 다음으로 35~39세의 비중이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수준도 두 집단 모두 70%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높은 편이었다. 기관병행이용 가구가 기관 미이용 가구(16.3%)에 비하여 고졸이하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27.5%) 4년제 대졸학력의 비율이 약간 낮으나 전반적으로 소득수준과 학력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은 편으로 사료된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적절한 기관 이용 시작시기, 즉 기관 이용 시기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기관 미이용 가구와 기관 병행이용 가구 사이에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기관 미이용 가구에서는 60.7%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사례가 36개월 이상 즉, 만 세 살 이상부터 기관을 이용한 집단 보육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33.8개월 정도를 기관 이용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기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현재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87사례의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기관 이용 시작 시기는 생후 28.6개월이며, 가장 많은 경우인 50.6%가 24~36개월 사이에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었다. 즉, 현재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집단이 기관 이용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근로 특성 중 가장 먼저 근로시간의 장단을 살펴보았다. 현재 모두 취업중이나 근로시간에는 편차가 있었고, 현재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두 집단간 근로시간의 장단 차이가 뚜렷하였다. 즉, 기관 미이용 가구 중 88.5%가 전일(full-time) 근로 기준인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고, 12.0%는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어 상당히 긴 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기관병행이용가구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가 33.3%이며 주 평균 근로시간도 37.2시간으로 기관 미이용 가구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 퇴근 시간의 규칙성 정도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퇴근시간이 '규칙적인 편'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아 각각 78.7%, 74.7%였으나, '매우 불규칙+불규칙한 편'의 비율은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 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가구소득과 유사하게 기관 미이용 가구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관 미이용 가구의 어머니는 200~300만원 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36.6%로 가장 많으며, 기관을 단시간 병행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100~200만원 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36.8%). 이는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가구의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대상 영아 자녀¹¹⁾의 월령은 기관 미이용 가구의 영아가 평균 15.1개월이며 기관 병행이용가구 영아 월령은 평균 23.9개월로 기관 미이용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해당 가구의 전체 자녀수는 기관 미이용 가구에서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 61.7%를 차지하였고,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 가구는 자녀가 2명인 경우가 47.1%로 가장 많아 2자녀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평균 자녀수는 두 집단이 유사하여 기관 미이용 가구 1.5명, 기관 이용 가구 1.6명이었다.

11) 해당 조사에서는 대상 가구에 영아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가장 연령이 높은 영아를 '대상영아'로 하여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음.

2. 기관 이용 실태

다음으로 맞벌이 영아 양육 가구의 단시간 기관 병행 여부와 기관 이용의 행태를 살펴보았다. 대상 맞벌이 가정 내 양육 가구 270사례 중 5시간 미만의 단시간으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32.2%인 87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단시간 기관 이용 가구의 기관 주당이용일수, 일일 이용 시간, 이용 시간 조정 가능 여부를 현재 대상 아동의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아동의 연령이 기관 이용 행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4>에 나타난 구체적인 기관 이용 행태를 보면, 주당 기관 이용 일수는 평균 4.9일로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94.3%에 달하였고, 해당 영아의 연령이 만 1세(12개월 이상)인 경우 주당 4.9일을 이용해 만 0세의 4.6일에 비해 주당 이용일수가 길었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루 이용 시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평균 3.8시간으로, 하루 4시간에 못미치는 단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부모가 직접 혹은 대리양육자를 통해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에서 기관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일기준 4시간 이하의 단시간 이용 행태를 보였고, 주당 이용 일수는 평균 4.9일로 꾸준히 거의 매일 단시간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 85.1%는 이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기관 이용 시간의 융통성이 있어 가정 내 양육을 하면서 필요할 때 시간을 조절해 가며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일 것으로 짐작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조사가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영아에게 무상으로 보육료가 지원되었던 2012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보육료는 종일제(12시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나 실제 이용자는 이보다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기관 보육이 종일제 기준의 완전한 대리양육의 기능 뿐 아니라 가정 내 양육을 보완하는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보육료의 무상지원으로 영아의 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러한 목적의 기관 이용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 맞벌이 가정 내 양육가구의 기관 병행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해당 영아 연령			
		전체	12개월 미만	12~24개월	24~36개월 미만
주당기관이용 일수	5일 미만	5.7(5)	18.2	4.3	3.8
	5일 이상	94.3(82)	81.8	95.7	96.2
	평균	4.9(일)	4.6(일)	4.9(일)	4.9(일)
일일기관이용 시간	3시간 미만	4.6(4)	27.3	4.3	0.0
	3~4시간 미만	6.9(6)	9.1	13.0	3.8
	4~5시간 미만	88.5(77)	63.6	82.6	96.2
	평균	3.8(시간)	3.4(시간)	3.7(시간)	4.0(시간)
이용시간 조정가능여부	가능	85.1(74)	90.9	87.0	82.7
	불가능	14.9(13)	9.1	13.0	17.3
계(수)		100.0(87)	100.0(11)	100.0(23)	100.0(52)

3.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의 이유

영아에 대해 가정내 양육을 하면서 기관도 단시간 병행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동의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현재 12개월 미만 아동의 기관 병행 이용 이유 1순위로는 '아이보는 사람의 육아 부담과 피로를 경감하기 위해서'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고(54.5%), '어머니의 취업활동을 위해'가 18.2%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아이보는 사람의 육아부담과 피로 경감'의 목적으로 기관을 병행하는 경우는 영아 연령 '12~24개월' 39.1%, '24~36개월 미만' 34.6%로 아동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된 단시간 기관 이용 이유로는 '아이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위해'가 모든 연령별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12개월 미만은 33.3%, 12~24개월 미만은 43.5%, 24~36개월 미만은 48.0%가 이에 응답하였다. 그밖에 '집에서 하루종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로 12개월 미만 33.3%, 12~24개월 미만 21.7%, 24~36개월 미만 12.0%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요 응답은 아니었지만 '기관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의 이유로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한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1순위 응답의 경우 만 12개월 미만 아동의 9.1%, 2순위 응답의 경우 12~24개월 미만 아동의 13.0%가 비용 지원이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맞벌이 가정 내 양육 가구의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의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아이보는 사람의 육아 부담과 피로 경감	54.5	39.1	34.6	11.1	8.7	8.0
어머니의 취업활동을 위해	18.2	13.0	15.4	11.1	0.0	14.0
아이의 다양한 경험·교육을 위해	9.1	26.1	19.2	33.3	43.5	48.0
집에서 하루 종일 봐줄 사람이 없어서	0.0	0.0	23.1	33.3	21.7	12.0
대리양육자 장시간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0.0	8.7	0.0	0.0	4.3	6.0
아이가 기관에 오래있는 것을 힘들어해서	0.0	0.0	0.0	11.1	4.3	8.0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9.1	4.3	0.0	0.0	13.0	2.0
기타	9.1	8.7	7.7	0.0	4.3	2.0
계(수)	100.0(11)	100.0(23)	100.0(52)	100.0(9)	100.0(23)	100.0(50)

4. 맞벌이 가정 내 양육 가구의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 결정 요인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맞벌이 가정 내 영아 양육 가구는 영아기 자녀에 대해 대체로 ‘가정 내 양육’을 바람직한 형태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중인 부모가 직접, 혹은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정 내 양육을 실현하고 있는 가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단시간이나마 꾸준히 이용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6).

먼저, 가구특성요인, 어머니 일반적특성 요인, 어머니의 근로특성 요인, 자녀특성 요인을 포함하여 맞벌이 가정 내 양육 가구의 단시간 기관 병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본 연구 모형의 카이제곱 값을 살펴보면, $\chi^2=91.762$ 이며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결과는 “독립변수들의 계수는 0과 같다” 혹은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카이제곱 값을 통해 검증한 것이므로(김호정·허전, 2008: 475), 귀무가설은 기각될

수 있으며 본 모델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기관 미이용 가구 예측 정확도 90.3%, 기관 이용 가구 예측 정확도 60.2%로 기관 이용 가구 예측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나 전반적으로는 81.0%로 비교적 높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맞벌이 가정 내 양육 가구의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	S.E	Wald	Sig	Exp(B)
가구월평균 소득	.172	.266	.418	.518	1.187
주양육자의 비혈연인력 여부	-1.749	.417	17.580	.000***	.174
어머니연령	-.028	.255	.012	.914	.973
어머니학력	-.067	.205	.108	.743	.935
적절한 기관이용시기	-.043	.015	8.198	.004**	.958
어머니근로시간	-.036	.017	4.575	.032*	.965
어머니퇴근의 규칙성 정도	-.294	.272	1.171	.279	.745
어머니의 근로소득	-.084	.079	1.123	.289	.919
대상영아연령	1.216	.225	29.168	.000***	3.375
전체자녀수	.417	.270	2.390	.122	1.517

-2Log likelihood=235.169 $X^2=91.762(p=.000)$

분류표에 의한 예측 정확도=81.0%

(기관 미이용 가구 예측 정확도=90.3%, 기관 이용 가구 예측 정확도=60.2%)

주: * p< .05, ** p< .01, *** p< .001.

다음으로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수준과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맞벌이 가정 내 양육 가구의 기관 병행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반면 주양육자가 '비혈연의 대리양육자인지 여부', 어머니 특성인 '적절한 기관 이용 시기(기관 이용에 대한 가치관)', 어머니의 '근로시간', 자녀 특성인 '대상 영아 연령'이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 내 양육 가구의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양육자가 비혈연 대리양육자인지 여부(비혈연 인력임=1, 비혈연 인력 아님=0)'는 B가 -1.749로 주양육자가 비혈연 인력일 경우 기관 병행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가정 내 양육 가구의 주양육자가 비혈연 인력이 아닌 부모나 친인척일 경우에 기관을 단시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즉, 부모나 조부모 등 친인척이 가정 내에서 주양육자로 자녀를 돌볼 경우 비록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할지라도 이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시간 기관 이용을 하고자 할 수 있으나, 고비용이 소요되는 비혈연 인력을 고용하여 가정 내 양육을 할 경우에는 주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기관 이용을 할 의도는 낮아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 내 양육 가구의 주양육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 이는 최근 조부모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질 경우에 특히 이들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킬 의도로 기관 이용을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즉, 조부모를 대리양육자로 둘 경우에는 기관과의 대체관계라 할 수 없으며 보완적 의미에서의 기관 이용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B가 -.036으로 근로시간이 길수록 기관 병행 이용은 하지 않는 부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정 내 양육이 선호되는 0~2세 영아를 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오히려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Ahn, J. & Shin, N., 2011: 447)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기관병행 이용가구의 주양육자가 어머니(부모)인 비율이 높았던 것과 연관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본인이 직접 자녀를 가정 내에서 돌보며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경우 일정 시간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일과 자녀 돌봄의 양립에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표 3 참조). 이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이 기관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취업모 중에서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기관 이용 혹은 기관 이용 시간의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기관 이용 시기’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가 -.043으로 부적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적절한 기관 이용 시기가 늦을수록 현재 기관 이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양육 가구의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대상영아의 연령’은 B가 1.216으로 정(+ 방향)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대상

영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단시간 기관 이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정 내 양육 가구들은 일반적으로 영아에 대해 '가정 내 양육'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가구들로 바람직한 기관 이용 시기에 대해서도 최소 28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다(표 3 참조)¹²⁾. 그럼에도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기관 이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외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되었었던 가구소득수준이나 어머니의 연령, 학력의 영향력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 이용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중 가구소득수준은 특히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2012년도부터 시행된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차등지원정책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보육료 지원인 전계층 무상보육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기관이용의 경제적 접근성 차이는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영아무상보육이 실시된 2012년 이후 영아의 경우는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보다는 개별 가구의 보육 욕구나 가치관에 따라 이용여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양육수당'마저도 2013년부터는 소득계층에 상관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변화됨으로써 2013년도 영아 가구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므로¹³⁾ 향후 개별 가구의 상황과 보육 욕구에 따른 영아 양육 형태의 선택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관을 단시간 병행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 내 양육 가구 중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혈연·비혈연 개인보육(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전체 87사례 중 37.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2012년 이전이라면 고비용이 소요되는 개인보육(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어린이집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며 이때문에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은 비용에 대한 이중부담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12) 기관 단시간 병행 가구 기준임.

13) 보건복지부(2013.3.25.). '13년 3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 보도자료.

데, 2012년 이후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서도 기관을 병행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 기관이용만으로 불충분한 일-가정 양립의 욕구를 가정 내 양육으로 보완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반대로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 때문에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하였으나 일-가정 양립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가구가 기관 병행 이용을 통해 가정 내 양육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양육 형태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의 경우가 본 연구의 대상인 맞벌이 가정 내 영아 양육 가구의 기관 단시간 병행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영아에게 선호되는 가정 내 양육을 기관이용으로 보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IV. 요약 및 논의

먼저 본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에 대해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많은 경우 혈연·비혈연의 대리양육자를 둔 가구이지만 짧은 근로시간 혹은 직장의 특성을 활용해 부모가 주양육자인 맞벌이 가구도 존재하였다. 가정 내 양육을 하는 맞벌이 가구 중 현재 기관을 단시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주양육자로 근로시간도 비교적 짧은 경우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단시간 기관 이용에 대한 수요는 부정기적인 욕구가 아닌 꾸준한 단시간 보육서비스 수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양육 가구가 기관을 이용할 경우 하루 4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이용하지만 주당 이용일수는 주 5일에 가까운 4.9일로 단시간 꾸준한 이용 행태를 보였다.

셋째, 가정 내 양육가구의 주양육자가 누구인가가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조부모 등 혈연이 아동의 주양육자인 경우 유익하게 단시간 기관 이용이 증가하고, 비혈연 인력이 주양육자일 경우에는 기관 이용은 감소하였다. 이는 즉, 가정 내 양육 가구의 주된 기관 병행 목적이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자신이나 혈연의 친인척이 자녀의 주양육자인

경우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기관 이용을 할 의도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미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며 고용한 '비혈연 인력(ex. 베이비시터)'을 위해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할 의도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비혈연 대리양육자'를 고용할 경우는 '기관보육'의 대체재로 인식된 경우라 하겠다.

넷째,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은 맞벌이 가구에서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모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주양육자가 부모 즉, 어머니인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근로시간이 짧거나 근로 형태가 유연한 직장에 취업중인 어머니는 기관을 종일제 미만으로 이용하면서 어머니 자신이 자녀를 돌보며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경우 긴 시간이 아닌 단시간의 기관 이용만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본 연구에서 맞벌이 가구 중 현재 단시간 기관 이용을 하고 있는 사례는 기관 미이용 가구에 비해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약 26.6% 높고 근로시간도 8시간 미만인 경우가 기관 미이용 맞벌이 가구 대비 약 3배 수준인 33.3%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시간제 일자리,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시간 기관 이용은 이처럼 어머니 자신의 양육과 취업활동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맞벌이라 하더라도 종일제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근로 형태로 제시되는 '시간제 정규직'이 현실적으로 확산된다면 이러한 단시간 보육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가구소득수준이나 어머니의 근로소득 등 가구의 경제적 조건은 영아 가구의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해당 가구가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가구소득수준으로 대리되는 기관 이용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의 정도가 기관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가구소득수준이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2012년 마침내 영아 가구에 대해서 소득계층에 관계없는 무상보육이 실시됨으로써, 향후 영아의 기관 이용은 온전히 가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과 양육 형태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좌우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은 기관보육과 가정 내 양육을

서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여 이를 주된 양육 형태로 선택하는 가구라도 기관보육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수요를 지닐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의 다양화가 필요함이 드러나고 있다. 기관 보육과 가정 내 양육이 배타적인 양육 형태이거나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하는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보육 욕구 충족과 유연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융통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시각에서의 육아지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개인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내 양육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에 있어 일-가정 양립에 더욱 융통성을 부여하는 서비스로 선호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고비용과 폐쇄성 등 취약점은 존재하며, 기관보육서비스는 가정 내 양육가구의 주된 취약점인 폐쇄성과 양육자 1인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종일제 기관 보육, 종일 기준 가정 내 양육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의 보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대상인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 부모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기관 보육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모의 보육 욕구와 함께 영유아 연령별로 적합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세 이상 유아는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도 기관 이용이 권장될 수 있으나, 3세 미만 영아의 양육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양미선, 2012)는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지원 정책은 '종일제'와 그 이상으로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의 전일제(full-time) 근로 취업 등 반드시 종일제 기관 보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아동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이용 시간이 조절될 수 있도록 단시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서문희, 2012). 예를 들어 단시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액을 이용 시간만큼 종일제 기준 보육료 지원액의 일정 비율로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노르웨이의 양육수당(cash for care) 지원 방식처럼 보육 기관 이용 가능 시간의 잔여 시간만큼 일정액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Statistics Norway, 2011). 이러한 방식 하에서는 보육수요자가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합리적 소비'의 유도가 가능할 것이다.

즉, 가정 내 양육자가 부재한 취업모 가구 위주로 영아에 대한 종일제 보육을 제공하는 한편, 미취업모 등의 종일제 대리양육 목적이 아닌 주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스트레스 완화, 가정 내 양육의 폐쇄성 극복(아동에 다양한 경험 제공) 등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단시간의 보육서비스도 개발하여 보육서비스의 소비자 자신이 적절한 시간의 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일제 대리양육서비스'라는 선입견을 탈피하여 가정 내 양육의 취약점을 보완하거나 다양한 단시간 취업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대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면, 반일제 이하의 꾸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맞벌이 여부, 부모의 근로시간, 가정 내 양육자의 존재여부(동거가구원 등) 등의 기준을 통해 선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제 어린이집'과는 다른 형태로 반일제 이하의 꾸준한 보육서비스 이용을 기준으로 한 차등화된 보육료 지원 단가가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맞벌이 가정 내 영아 양육 가구의 단시간 기관 병행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기관 미이용 가구 예측 정확도'에 비해 '기관 이용 가구 예측 정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 본 연구에서 투입된 독립변수 외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인 영향이 추가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주변의 믿을만한 보육·교육기관의 존재 여부 등 보육·교육 서비스 자원への 접근성 정도가 실제 기관 이용 여부에 매우 중요한 조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투입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에는 가구의 수요 측면 뿐 아니라 보육·교육 자원의 공급 측면의 변수 등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경(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67, pp. 235-264.
- 김호정, 허전(2008). 한글 SPSSWIN 14.0 통계분석 및 해설. 서울: 삼영사.
- 노성향(2010). 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지원 방안: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정규직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이정원 외(2012)에서 재인용.
-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10.4).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3.3.25). '13년 3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 보도자료.
- 서문희(2010). 소득수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아동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육구: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p.5-25.
- 서문희(2012). 어린이집 이용, 일하는 어머니가 우선되어야. 육아정책 Brief, 2012(7).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김은설, 최진, 안재진, 최혜선, 김유경(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 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최윤경, 최혜선, 성혜영(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계 개편 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신나리, 안재진(2012).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pp.863-874.
- 심미경(2012). 행복한 삶의 베이스캠프로서의 가정양육. 2012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7~20.
- 안재진(2009). 미취학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관한 연구: 연령집단별 비교 및 취학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5(2), pp.96-120.

- 양미선(2012). 0~2세 양육지원 정책, 아동을 가정 먼저 고려해야. *육아정책 Brief*, 2012(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 홍승아, 서문희, 정민자, 권혜진, 신보원(2011). 수요자 입장에서 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정원 외(2012)에서 재인용.
- 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황은숙(2010).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정책방안 연구: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2008).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2(2), pp.95-113.
- 이정원, 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정원, 도남희, 김세현, 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I):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전세경(1994). 도시 취업모의 탁아유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pp.135-147.
- 정선욱, 안재진, 김세원(2005). 학령 전 아동의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권리연구*, 9(1), pp.105-126.
- 최윤경, 이윤진, 김세현, 나지혜(2012). 아동발달 관점에서 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고찰.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Ahn, J., Shin, N. (2011). The Use of Child Care Centers for Infants of Dual-Working Families: A Korean Study. *2011 KICCE international seminar & annual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p.435-451.
- Belsky, J., Rovine, M. J. (199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pp.157-167.
- Berinde, D. (1999). Pathways to a Third Child in Sweden. *Journal of Population*, 15, pp.349-378.
- Detting, A. C., Gunnar, M. R., Donzella, B. (1999). Cortisol levels of young children in full-day child care centers: Relations with age and temperament. *Psycho-neuroendocrinology*, 24, pp.519-536.
- Geoffroy, M. C., Cote, M. C., Parent, S., Suguin, J. R. (2006). *Daycare attendance, Stress and mental health*. 최윤경 외(2012)에서 재인용

Park, E., Lee, S., Kim, E., Park, S. (2011). Analysis of Factors to Forecast Parents' Decision Making on the Plan to Us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s. *2011 KICCE international seminar & annual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p.425-434.

Statistics Norway (2011). *Children aged 1~2 Proportion of children in different groups for whose parents receive cash-for-care*.

Vermeer, H. J., IJzendoorn, M. H. (2006). *Children's elevated cortisol levels at daycare: A review and meta-analysis*. 최윤경 외(2012)에서 재인용.

이정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육정책, 출산정책, 일-가정 양립 정책이며, 현재 가정내 양육 서비스 고령 출산모 양육지원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dian74@kicce.re.kr)

도남희는 연세대학교에서 아동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육정책, 기업의 보육자원, 일-가정 양립 정책이며, 현재 아동패널, 아동의 생활시간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cando@kicce.re.kr)

Determinants of Using Short-time Child-care Services in Dual-income Families with Infants

Lee, Jeongw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Do, Namhe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 why dual-income families with infants make more use of short-time child-care services (than use of full-day services) in spite that the child-care subsidy is provided based on 12-hour full-day service and what are the determining factors of short-time service using. Findings indicate that in case that dual-income family with infants uses both short-time child-care services and in-home care, using center-based child-care service is likely to be made 4 hours a day, 5 days a week steadily. And, 'relieving child-rear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 and 'pursuing various experience and education for children' are turned out to be the reasons for using short-time center-based child-care service. Findings also prove that determinants of dual-income families' using short-time child-care services are the type of primary caregiver, mothers' working hour, the age they consider appropriate for infants to use the service, and the age of infants. In other words, dual-income families who especially care their infants primarily in home show tendency to use short-time center-based child-care services in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determinants proven abo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relation to center-based child car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in-home care service and develop various kinds of child care service that suits parent's need.

Keywords: Dual-income Families, Infants, In-home Care, Center-based Child Care Services, Short-time Child-care Service